

# “기업, 사회문제 해결 체계적 접근 필요”… 보상시스템 제안

##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

ERT 멤버스 데이에서 기조강연  
“취약층 지원,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 
사회 긴밀히 연결돼 한 부분 붕괴면  
다른 부분도 그영향 피할 수 없어”

“우리 사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 
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 
그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  
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  
력이 필요합니다.”

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 
사회 핵심 문제로 떠오른 ‘미래세대·인  
구변화’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 
선한 영향력을 공유하고 사회 문제에  
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. 경  
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  
는 가운데, 기업들이 힘을 모아 사회문  
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강  
조했다.

최 회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  
의회관에서 개최한 ‘ERT(신기업가정  
신협의회) 멤버스 데이’ 행사에서 “우리  
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. 통  
상환경 변화, 인플레이션, AI 등 격변  
하는 요소들이 많다”며 “이 많은 도전과



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'2025 ERT Member's Day'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. /뉴스1

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태껏 열  
심히 해왔던 경제적 가치 추구를 한다”  
고 말했다. 이어 “이걸 잘해나가기 위해  
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 
해나가야 한다”며 “그래야만 기업이 사  
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  
다”고 강조했다.

대한상공회의소 ERT는 대한상의가  
지난 2022년 발족시킨 기업 협의체로,  
현재 약 1560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. 이  
날 열린 ERT 멤버스 데이 행사는 우리  
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 
기업에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지난해 1

월 처음 개최된 바 있다. 올해 행사에는  
주요 회원 기업 대표인 리더스클럽 멤  
버를 비롯해 총 500여 명의 회원 기업  
임직원이 참여했다.

최 회장은 “누군가는 돈벌이 하는 것  
도 어려운데 사회문제도 같이 해결하라  
고 말할 수 있다”며 “삼각 파도에 대  
해 이야기 했지만, 기업들보다 더 힘든  
건 취약계층이다. 기업 입장에서 보면  
‘나와는 상관없는 일’이라고 생각할 수  
있지만, 우리 사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  
돼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

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  
이다 갖춰져도, 어느 한 영양소가 부족  
하면 성장이 제한되는 것처럼 사회도  
마찬가지”라며 “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  
너지 채로는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힘  
들다. 우리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  
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”라  
고 덧붙였다.

또 기업들이 꾸준히 사회기여활동을  
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  
할 것을 주문했다. 최 회장은 “가장 시급  
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, 객관적

데이터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마련해야  
한다”며 “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아직  
기업의 활동이 미비한 ‘기회의 영역’에  
서 국민은 바라보고 있는데 기업의 리소  
스 투입이 부족했던 것들을 공략할 필  
요가 있다”고 제안했다. 이어 “리워드  
시스템도 필요하다”며 “기업이 사회문  
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측  
정이 돼야 보상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 
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  
이 발휘되는 ‘관계의 가치’의 중요성도  
강조했다. 최 회장은 “우리 사회는 정  
부, 기업과 그 구성원, 소비자, 그리고  
지역사회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고 사  
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”며 “사회  
문제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”고 전  
했다.

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업과 지역상  
의,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실천에 동참하  
길 강조했다. 최 회장은 “ERT에는 소중  
한 파트너들이 많이 늘었다”며 “사회복  
지공동모금회 ‘사랑의 열매’와 업무협  
약을 맺고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  
고 있으며 주한미국상의도 ERT 리더  
스클럽에 합류한 만큼 외국계기업의 동  
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  
다. /양성운 기자 ysw@metroseoul.co.kr

## 美·中 무역갈등에 국내 조선사 ‘반사이익’

### 중 기업과 계약하려던 獨 해운사 한화오션에 컨선 6척 발주 검토

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 산업에 제재  
를 검토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  
영향이 기대되고 있다. 무역 갈등으로  
인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  
산돼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조선소 발  
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 
이다. 국내 조선사들은 최근 이어지고  
있는 슈퍼사이클(초호황기)에 더해 반  
사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.

1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해운사 하  
팍로이드가 1만 6800TEU(1TEU는 20  
피트 컨테이너 1개)급 컨테이너선 6척을  
한화오션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 
것으로 알려졌다. 계약 규모는 12억달러  
(약 1조 7500억원) 수준이며 최종 결정은  
이달 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  
계 안팎의 중론이다. 당초 하팍로이드는  
중국 조선사와 건조 계약을 맺을 예정이  
였다. 다만 미·중 갈등이 심화되자 발주  
처를 한화오션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 
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이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 정부의 대  
중국 제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.  
최근 미국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을 근거  
로 중국 1위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  
업그룹(CSSC)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  
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. 해당 기  
업들이 중국 군대와 연관돼 있다는 이  
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 
조치로 해석된다.

또한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지  
난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  
국이 조선·해운을 ‘장악 목표 산업’으로  
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



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.

로 판단했다. 해당 조사로 트럼프 2기  
행정부가 중국 조선업계를 제재할 근거  
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  
이 확산되고 있다.

국내 조선사들도 미·중갈등이 격화  
되는 가운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 
드러내고 있다.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 
6일 컨퍼런스콜에서 “미·중 갈등 고조로  
인한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선주들의 중  
국 발주 거부감이 실제 커지고 있는 상  
황”이라며 “남미, 아프리카, 중동 등 비  
서구권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  
부분을 겨냥한 신조 수요 가능성도 꺾  
지지 증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화오션 또한 지난달 “최근 중국 조  
선소의 설비 확장과 대량 수주로 우려  
가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의 불공정 거  
래 제재 강화, 중국 선사 조선소 블랙리  
스트 등재 등으로 한국 조선소 선호도  
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언급한  
바 있다.

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LN  
G개발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면  
서 LNG 운반선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

만큼, 국내 조선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 
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.

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 
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조선업계와  
의 협업 의지를 밝힌 점도 기회 요인으  
로 평가된다. 국내 조선사들은 연간 20  
조원 규모인 미국 해군 함정 유지·보수·  
정비(MRO) 사업에 본격 뛰어들 방  
침이다. 한화오션은 이미 지난해 2건의 사  
업을 따냈고 HD현대중공업도 올해 2~  
3척의 미군 함정 MRO 수주 계획을 밝  
혔다.

삼성중공업은 최근 부유식 액화천연  
가스 생산설비(FLNG) 분야의 경쟁사  
인 중국 기업 위신이 미국 재무부의 제  
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 
시장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.

업계 관계자는 “한국 조선업계가 반  
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지만, 동  
시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과제가  
남아 있다. 앞으로 주요 선사들의 발주  
흐름과 각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  
켜볼 필요가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/차현정 기자 hyeon@

### <2025년 산업부 조선해양분야 지원 예산 현황>

/자료=산업부

분야	2024년	2025년	증감율
친환경 선박	1,202억원	1,716억원	42.7%
공정 디지털전환(DX)	486억원	667억원	37.2%
자율운항선박 등	166억원	203억원	22.2%
합 계	1,854억원	2,586억원	39.5%

## K-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에 2600억 투입

산업부, 전년 1854억 대비 40% 증액  
친환경에 1700억, 공정DX 700억 등

소·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점  
추진한다.

정부가 올해 K-조선 초격차 확보를  
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 투자  
한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K-조선  
경쟁력 확보에 전년(1854억원) 대비 약  
40% 증액한 258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  
혔다.

지난해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  
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 
있지만,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  
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  
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.

이에 산업부는 작년 7월 친환경·디지털·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 
기술 확보 로드맵인 ‘K-조선 초격차 비  
전 2040’을 발표하며 바 있으며, 올해부터  
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.

올해 예산 중 친환경 선박에 가장 많  
은 1700억원을 투입하고, 선박 건조 공  
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, 자율운  
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  
정이다.

산업부는 이를 위해 조선해양산업기  
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1차 지원과  
제를 12일 공고한다. 이번 신규과제는  
총 17개(약 200억원 규모)이며 ▲암모  
니아 추진선박 ▲전기 추진선박 ▲풍력  
보조 추진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▲공  
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▲조선

신규 과제 중 세계 최초·최고 수준의  
조선소·협력업체간 협업플랫폼과 조  
선헤터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  
스템 개발에 가장 많은 170억원이 투입  
된다.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,  
안전사고 예방,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  
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특히,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  
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 
LNG(액화천연가스)선을 이을 차세대  
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.

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  
스템·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·배기가  
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  
을 신규로 지원하고, 세계 최초로 암모  
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사업도  
착수한다. 암모니아 벙커링선박(2만  
3000㎥급) 건조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 
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. 사  
업에는 5년간 120억원이 투입된다.

또 고전압 직류시스템 중 중대형 전  
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와 선박 풍력  
보조 추진 장치(윈세일), 선박 내 이산  
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  
도 신규 지원한다.

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양식  
은 범부처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  
ris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 hys@